

보건복지 제468호 (2026-09)

ISSUE & FOCU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6. 15. ISSN 2092-7117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및 시사점¹⁾

이지혜C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오던 출생아 수가 2024년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출생아 수 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최근의 증가 흐름이 일시적 반등인지,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지 파악하기 위한 인구학적 심층 분석이 필요함.
- 2015년 이후 출생아 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2024~2025년에는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반등 흐름이 관찰됨. 인구학적 요인 분해 분석 결과 최근의 반등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팬데믹 이후 연기되었던 혼인의 회복, 30대 유배우 출산율 상승 등 인구구조와 혼인-출산 행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다만 15~49세 여성 인구의 감소, 혼인-출산 연령의 상승, 기혼 무자녀 비중 증가 등은 향후 반등의 지속성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임. 따라서 향후 출생아 수 변화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집단별 심층 분석을 병행하는 한편 최근 회복세를 장기적 추세 전환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년층의 혼인-출산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01. 출생아 수 추세의 전환과 분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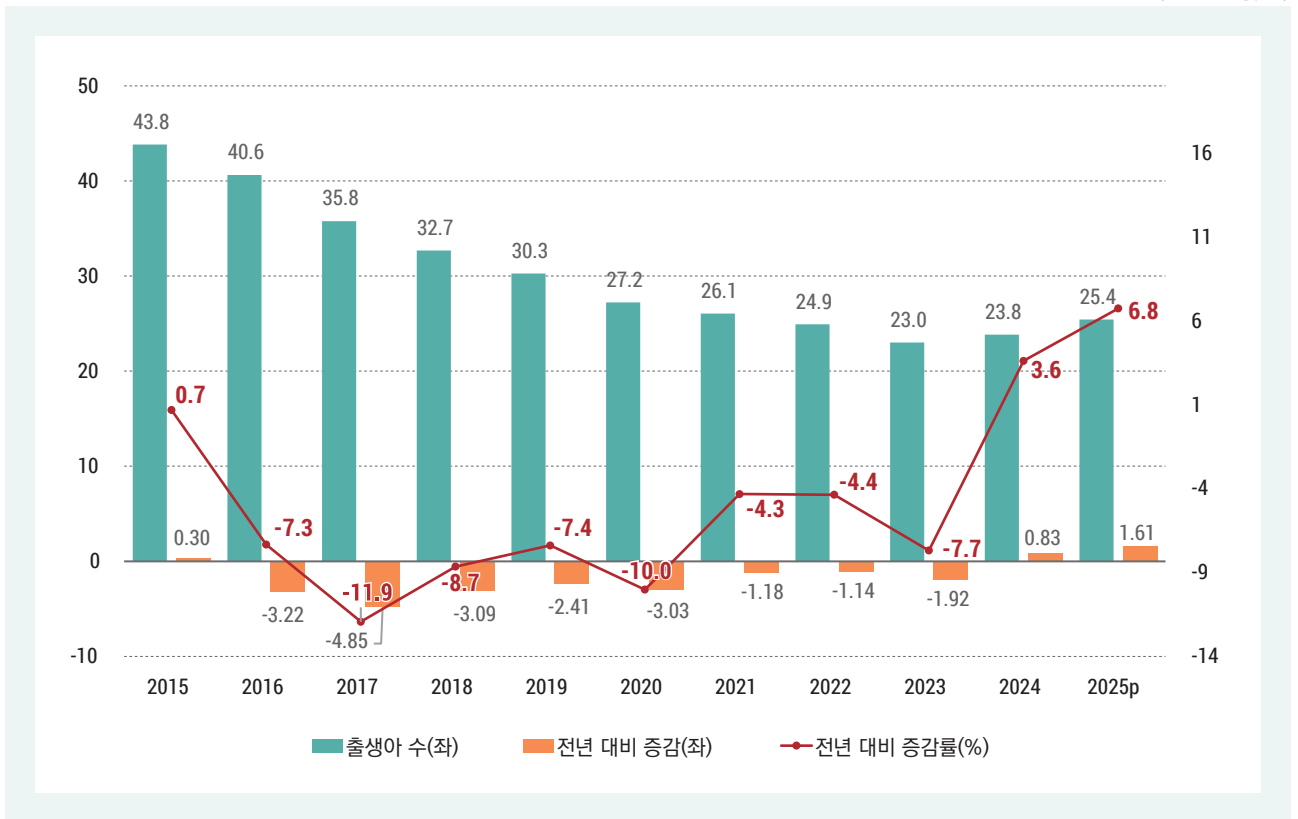
- ◆ 2015년 이후 급락세를 보여 온 출생아 수가 2024년 4월부터 2026년 2월 현재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출생아 수 감소 추세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8317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전년 대비 소폭 상승(8만 8289명, 3.6%). 2025년(25만 4457명)에도 전년 대비 약 1만 6140명(6.8%) 증가(국가데이터처, 2026. 2. 25.).

1) 이 글은 이지혜, 김은정, 최인선, 이철희. (2025).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으나,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통계(잠정)를 반영하여 재작성함.

- 2026년 1월 출생아 수(2만 6916명)는 전년 동월 대비 11.7%, 2월 출생아 수(2만 2898명)는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하며 2020년 동월 출생아 수 수준을 회복.
-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2024년에는 0.75명(전년 대비 0.03명↑), 2025년에는 0.80명(전년 대비 0.05명↑)으로 상승.
- 이지혜 외(2025)에서는 2020년 이후 출생아 수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2024년 출생아 수 증가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팬데믹 기간에 지연되었던 혼인 및 출산이 회복되면서 첫째아와 둘째아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결과로 분석.
- 국가데이터처(2025. 2. 26; 2026. 2. 25)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가 코로나19 시기의 기저 효과, 에코붐세대(1991~95년생)의 주 출산 연령대 진입, 2022년 8월~2023년 3월과 2024년 4월~2025년 12월 혼인 건수의 증가,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저출생 정책의 효과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그림 1] 2015~2025년 출생아 수 추이

(단위: 만 명, %)



출처: 인구동향조사: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국가데이터처, 2015-2025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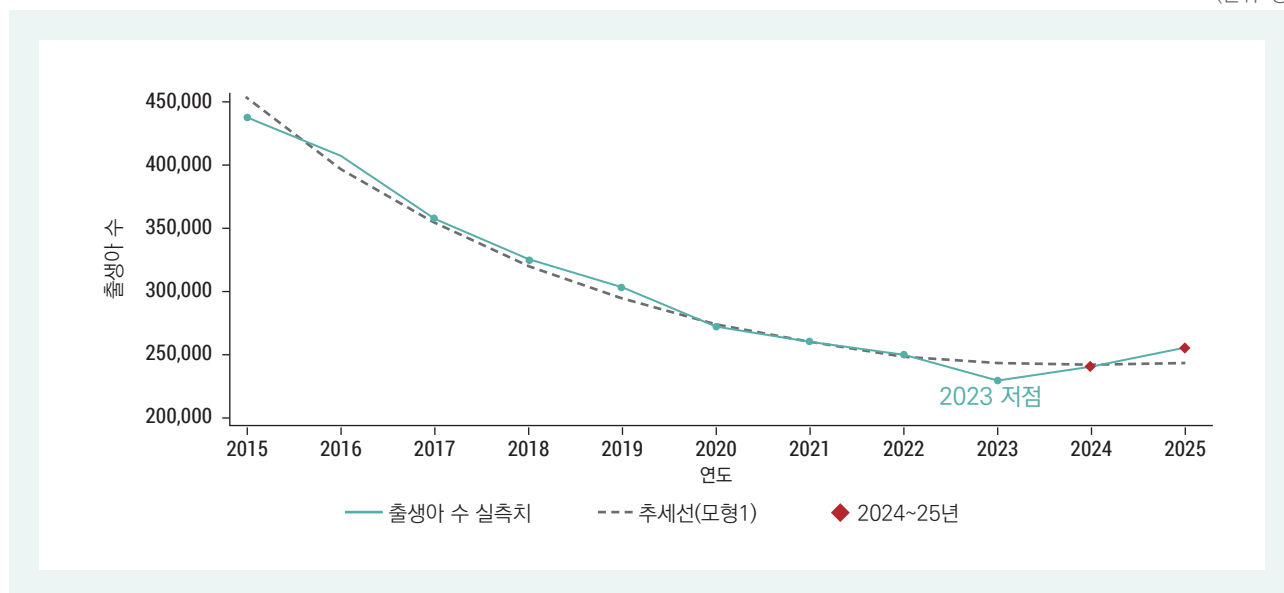
02. 출생아 수 추이 분석

◆ 2015-25년 출생아 수 변화 - 시계열 분석²⁾

- 2015년 이후 출생아 수의 장기 감소 흐름 속에서 2024~25년의 반등이 기존 추세에서 유의미하게 벗어난 변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계열 추세 모형 분석.
 - 2015~25년의 추세 반영(모형 1), 2023년(역대 최저치)의 이례적인 하락 반영(모형 2), 혼인 건수와 15~49세 여성 인구수 추가 반영(모형 3) 모형을 활용.
- 분석 결과 2024~25년에는 2022년 이후 혼인 건수 회복과 함께 기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반등 흐름이 확인되었으나 장기적 추세 전환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추가 관찰 필요.
 - 2015년 이후 출생아 수는 감소해 왔으나 시간제곱항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최근 출생아 수 하락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혼인 및 인구 요인을 추가한 모형에서 전년도 혼인 건수가 출생아 수와 양(+의 방향을 보여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이 혼인 회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

[그림 2] 출생아 수 추세 모형 분석 결과

(단위: 명)



출처: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국가데이터처, 2015-2025; “인구동향조사: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국가데이터처, 2015-2025;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 2. 25, p. 4의 <표 2>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2015~25년 출생아 수 변화-시계열 분석 모형

- 기본 모형은 출생아 수의 감소 추세와 최근 하락 속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출생아 수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시간추세항과 시간제곱항을 포함한 이차 추세 모형을 가정.

(기본 모형) $\ln(\text{출생아 수}_t) = \beta_0 + \beta_1 t + \beta_2 t^2 + \epsilon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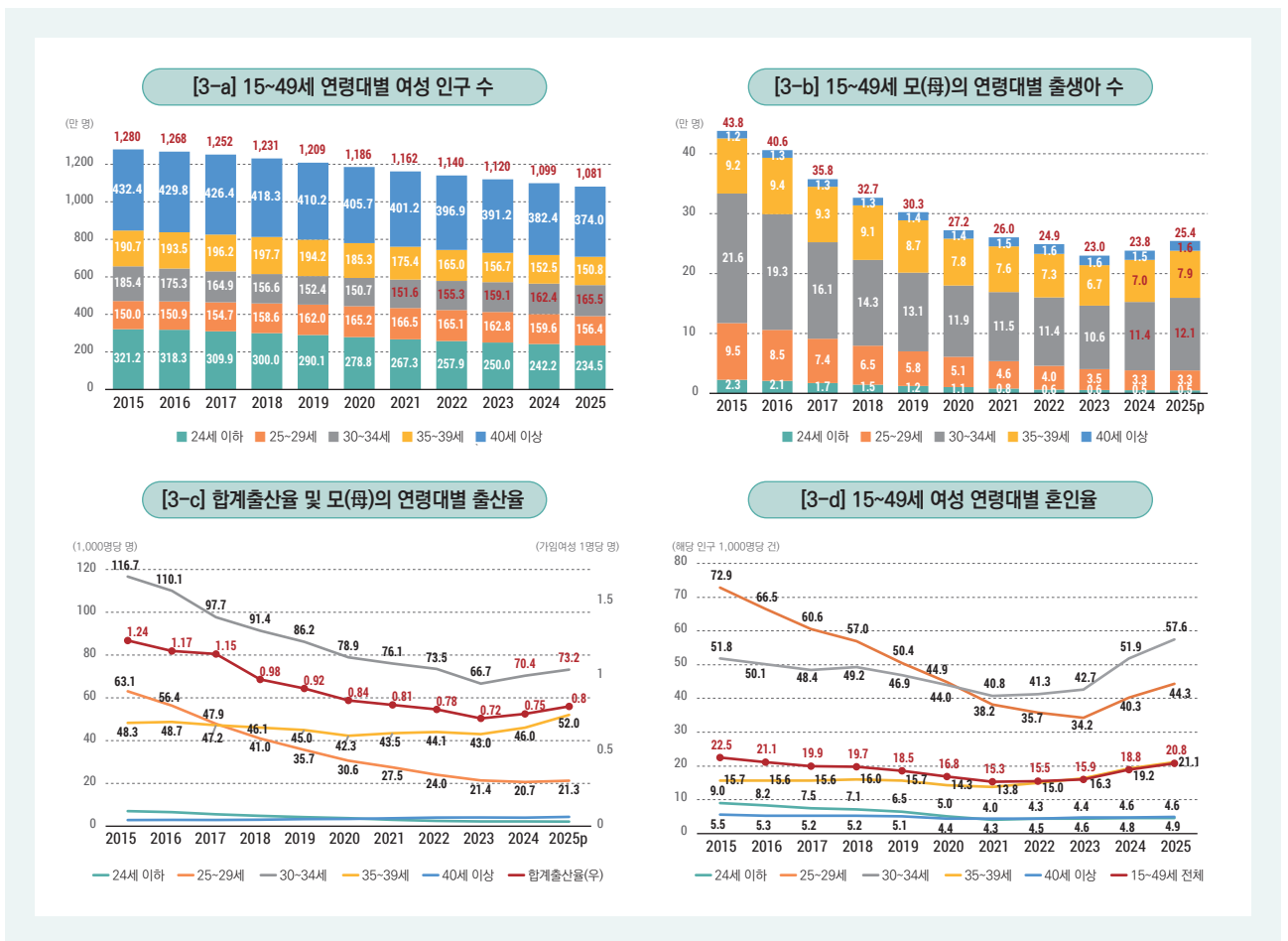
$\epsilon_t \sim i.i.d.N(0, \sigma^2)$

t 는 시간추세, t^2 는 감소속도를 보기 위한 이차항, ϵ_t 는 오차항

◆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15~49세 여성 인구수, 출산율 및 혼인율 추이

-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15~49세 여성 인구수, 연령대별 출산율, 연령대별 혼인율의 최근 추세는 주 출산 연령대인 30~34세 인구 증가, 30세 이상의 연령대별 출산율 및 전 연령대의 혼인율 증가로 요약됨.
 - 15~49세 여성 인구수는 매년 감소세에 있으나, 베이비붐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세대(1991~95년생)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30~34세 인구수 증가(그림 3-a). 이에 비례하여 해당 연령대의 출생아 수도 증가(30~34세의 출생아 수는 2024년 전년 대비 7.7%, 2025년에는 6.1% 증가)(그림 3-b).
 - 매년 감소세를 보여 왔던 연령대별 출산율(해당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2024년에는 30~34세에서 전년 대비(해당 인구 1,000명 당) 3.7명, 2025년에는 2.9명 증가했고, 35~39세는 같은 기간 3.0명, 6.0명 높아짐. 2024년까지 하락세를 보여 온 25~29세 출산율도 2025년에는 전년 대비 0.6명 상승(그림 3-c).
 -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율(해당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도 2022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냄. 2024~25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를 보임.(그림 3-d)

[그림 3] 15~49세 연령대별 여성 인구수, 모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연령대별 혼인율 추이(2015~2025년)



주: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며, 연령대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대별 인구수 대비 출생아 수의 비중임.

출처: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국가데이터처, 2015~2025;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국가데이터처, 2015~2024;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 2. 25, p. 4의 <표 2> 모의 연령별 출산율; “인구동향조사: 시도/성/연령별 혼인율”, 국가데이터처, 2015~20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03.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분해 분석(인구 효과와 출산율 효과 분해)

- 2016~23년 매년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감소는 연령대별 출산율 하락이 누적된 결과이나, 2024~25년에는 전년 대비 출산율 변화가 양(+)으로 전환하며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그림 4-a).
 - 총 출생아 수는 가임기 연령별 여성 인구와 연령별 출산율(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연령별 여성 인구수)의 곱으로, 이를 활용하여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변화를 가임여성 인구구조 변화 효과와 출산율 변화 효과를 분석함.
 -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15~49세 여성 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00~1만 명 정도 줄어 들었으며, 출산율 변화로 인해 전년 대비 8000~4만 명 정도 감소해 왔음.
 - 2024년에는 여성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851명 정도 감소했으나 출산율 상승으로 9149명이 증가하며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8298명 증가함.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인구 효과는 크지 않았고, 출산율 상승 효과가 출생아 수 증가를 주도하며 전년 대비 1만 6148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

◆ 모(母)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분해 분석(인구 · 혼인 · 출산율 효과 분해)

- 추가로 여성 유배우 비중과 혼인 상태별 출산율을 활용하여 출생아 수 변화를 여성 인구 변화,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혼인 상태 구성), 유배우 및 무배우 출산율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
 - 총 출생아 수를 여성 인구수, 유배우 여성 비중, 유배우 출산율, 무배우 출산율의 함수로 정의하고, 전년 대비 출생아 수 변화량을 로그평균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해함.³⁾
- 분해 분석 결과 2024~25년 출생아 수(25~44세 모(母) 기준) 증가는 주로 30대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30~34세 여성 인구 증가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최근 혼인 증가에도 유배우 여성 비중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여 2024년에도 출생아 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
 - 2023년의 출생아 수는 2022년 대비 약 1만 8398명이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30~34세 인구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639명의 출생아 수가 늘어났으나, 25~34세 유배우자 비중 감소(△1만 1249명), 35~39세 인구 감소(△3607명), 30대 유배우 출산율 감소(△4737명)가 출생아 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그림 4-b).
 - 2024년의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8499명 증가했는데, 30대 유배우 출산 행태 효과(+14,465명), 30~34세 인구구조 효과(+2224명), 25~44세 무배우 출산 행태 효과(+2679명)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25~44세 혼인 상태 구성 효과(△8532명)와 30대 초를 제외한 연령대의 인구구조 효과(△2818) 등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함(그림 4-c).

3)
$$\Delta B = (L_m + L_n) \cdot \ln\left(\frac{W_t}{W_{t-1}}\right) + L_m \cdot \ln\left(\frac{m_t}{m_{t-1}}\right) + L_n \cdot \ln\left(\frac{1-m_t}{1-m_{t-1}}\right) + L_m \cdot \ln\left(\frac{f_{m,t}}{f_{m,t-1}}\right) + L_n \cdot \ln\left(\frac{f_{n,t}}{f_{n,t-1}}\right)$$

출생아 수 전년 대비 변화량

인구구조 효과

혼인상태 구성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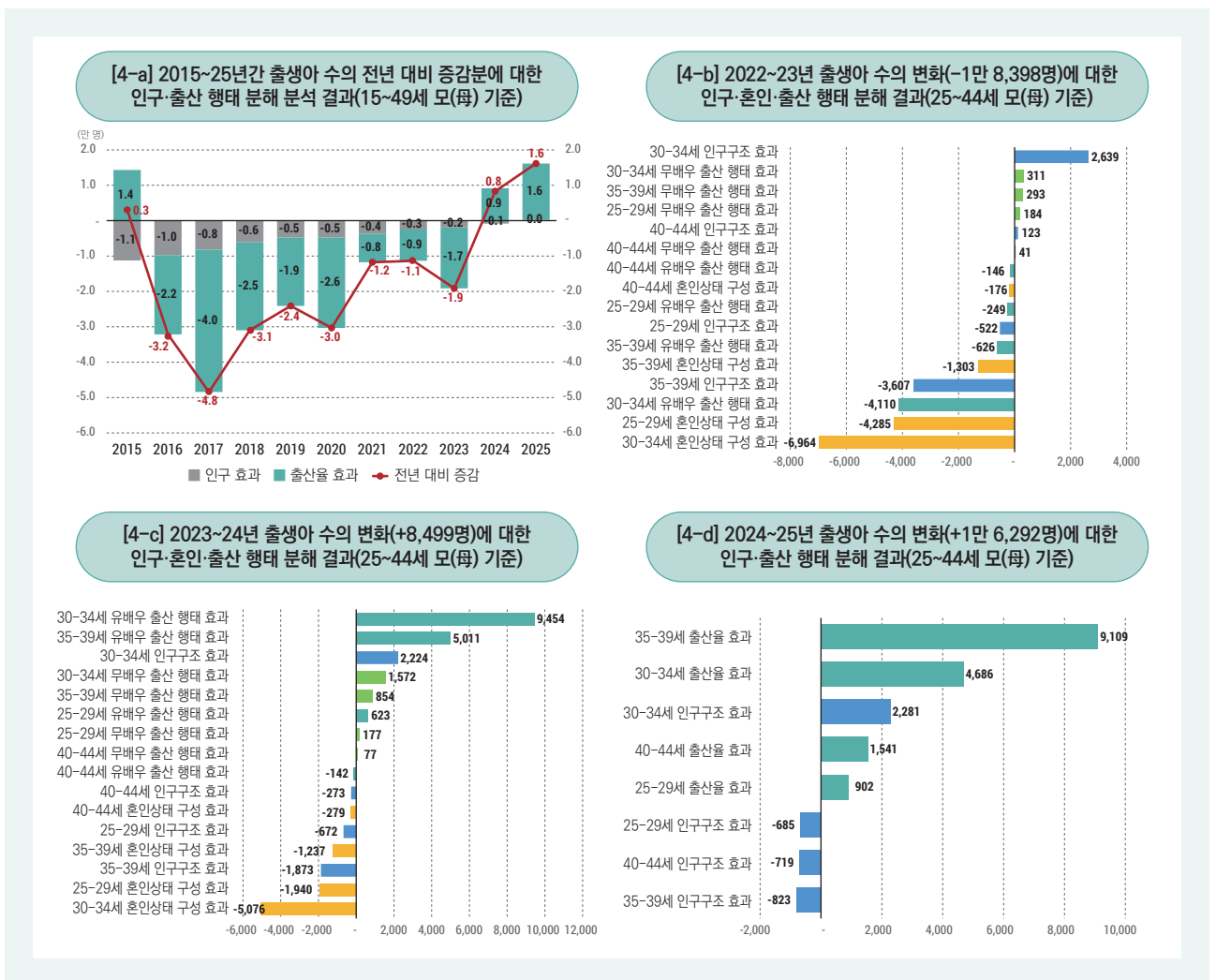
유배우 출산행태 효과

무배우 출산행태 효과

여기에서 W는 여성인구수, m은 여성 중 유배우 비중, fm은 유배우 출산율, fn은 무배우 출산율이며, L은 Canudas-Romo(2003)에서 제안한 전년(t-1)과 당해 연도(t) 값의 로그평균에 기초한 대칭적 가중치임.

-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1만 6292명 증가했는데⁴⁾, 이는 35~39세 출산 행태 효과(+ 9109명), 30~34세 출산 행태 효과(+4686명), 30~34세 인구구조 효과(+2281명)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그림 4-d).
- 이지혜 외(2025)에서는 출산순위별 유배우 출산율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는데, 2023~24년의 변화에서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율 증가의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혼인 누적분이 해소되면서 유배우 여성 중 자녀 출산 확률이 높은 신혼부부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들의 영향으로 첫째아 출산율이 전년 대비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자녀 양육 여건이 양호한 집단부터 추가 출산도 회복되면서 둘째아 이상의 출산율도 높아졌을 것으로 해석함.

[그림 4]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감분에 대한 인구-혼인-출산 행태 변화 분해 결과



주: 1) 25~44세 유배우 출산율 자료는 2015, 2020, 2022~24년만 가용하여 22~25년 자료에 대해서만 인구·혼인·출산 행태 분해 결과를 도출함. 2025년 유배우율, 유배우 출산율, 무배우 출산율은 자료 제약(현재 미공개)으로, 인구구조 효과와 출산율 효과로만 분해함.

2) 인구·혼인·출산행태 분해 분석에서는, 15~24세와 45~49세는 유배우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연도별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제외함.

출처: “인구동향조사: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국가데이터처, 2015~2025;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잠정)”[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 2. 25, p. 4의 표 2)의 연령별 출산율;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 국가데이터처, n.d.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 2025년 출생아 수 수치는 잠정치이며, 여성 유배우율, 유배우 출산율, 무배우 출산율 등이 현재 미공개 상태임. 다른 연도와 동일한 분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인구구조 효과와 출산율 효과로만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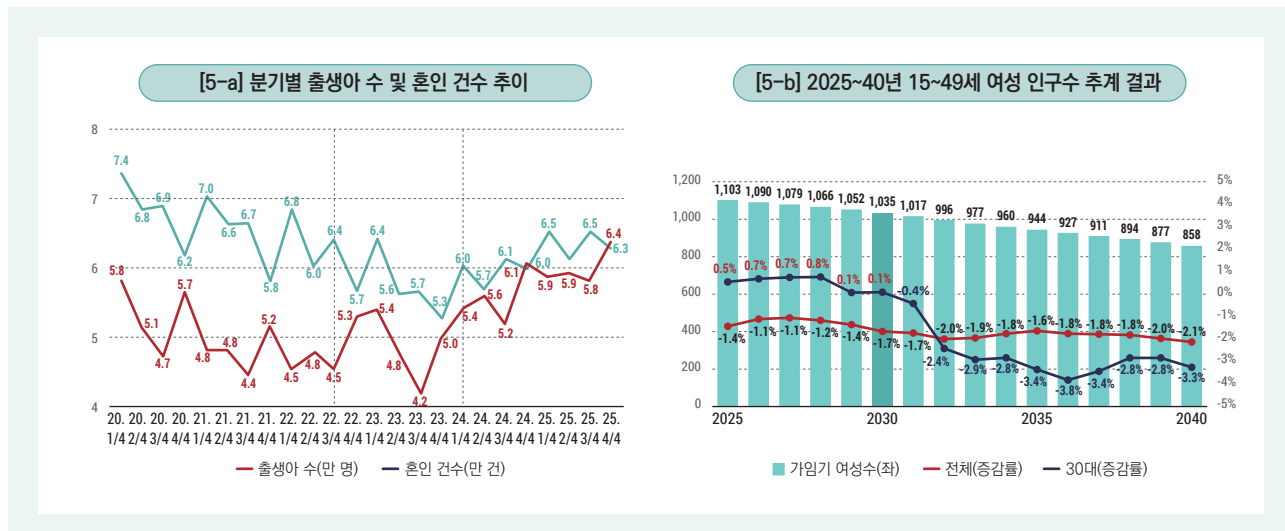
** 2025년 수치는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2024년 반등이 일회성 변화인지 지속되는 흐름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점이므로 분석에 포함함.

04. 향후 출생아 수 추세에 대한 긍정 및 제약 요인

◆ 출생아 수 증가 추세에 대한 긍정적 요인

- 2024년 4월 이후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회복세, 30대 여성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반등은 30대 유배우 출산율 상승, 30~34세 여성 인구 증가 효과, 팬데믹 이후 지연된 혼인의 집중 및 기저효과 등이 결합된 결과일 수 있음. 최근 반등을 장기적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변화를 연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분기별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회복을 보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이는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이 혼인 건수 저점 이후의 기저효과와 팬데믹으로 지연된 혼인이 집중된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그림 5-a).
 - 2030년까지는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의 일시적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그림 5-b). 다만 15~49세 여성 인구수의 절대적 감소 추세는 혼인율 상승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5] 2020~25년 분기별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추이, 2025~40년 15~49세 여성 인구수 추계 결과



출처: "인구동향조사: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국가데이터처, 2015~20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출처: "장래인구추계(전국)", 국가데이터처, 1960~207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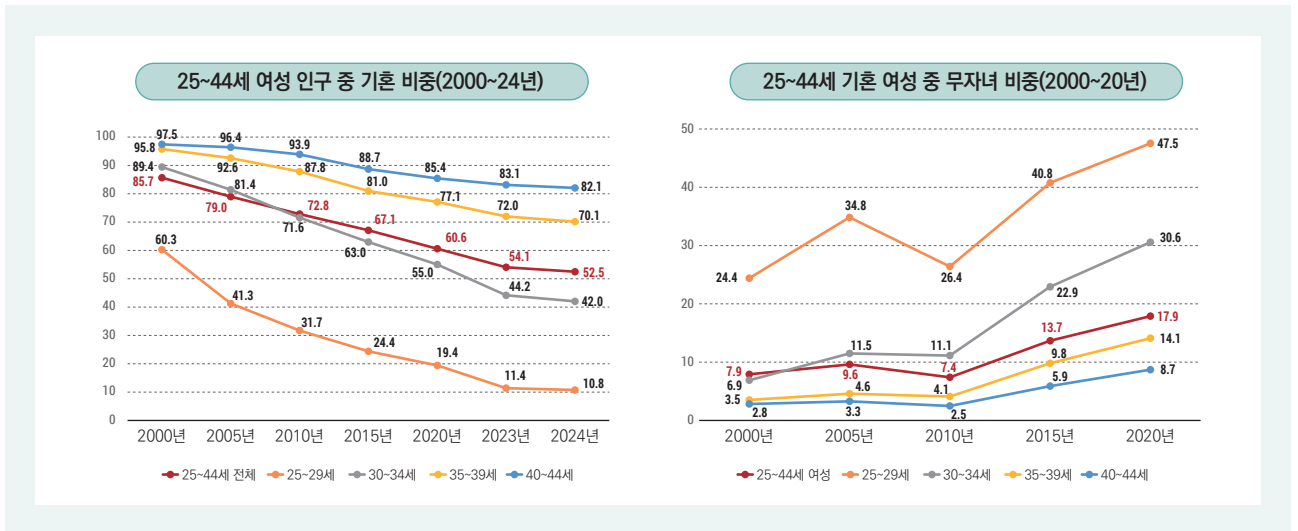
◆ 출생아 수 증가 추세 제약 요인

- 현재의 반등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와 혼인·출산 행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함. 특히 15~49세 여성 인구 감소, 혼인 및 출산 연령의 지연, 무자녀 비율 증가 등은 향후 출생아 수 반등의 지속성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혼인 및 출산 연령의 상승 현상(초혼 연령 및 평균 출산 연령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25~44세 여성 인구 중 기혼(유배우, 사별 및 이혼) 비중은 감소세, 기혼 무자녀 비중은 증가세를 보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통계에서도 무자녀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음. 혼인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유배우 무자녀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등 혼인과 출산 결정의 연계가 악화되는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25~44세 여성 인구 중 기혼 및 기혼 여성 중 무자녀 비중

(단위: %)



주: 2000~2020년 5년 단위 표본조사(유배우는 사실혼 포함, 일반/집단/집단지실 가구 내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2023년과 2024년은 인구등록센서스(유배우는 법률혼, 내국인 대상) 기준임. 2000년과 2010년은 10% 표본, 2015년과 2020년은 20% 표본임.

출처: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이지혜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6-3] 25~44세 여성인구 중 기혼 및 무자녀 여성 비중, 재인용

05. 시사점

◆ 출산율 반등의 지속 가능성 판단을 위한 지속적 점검 필요

- 최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반등은 의미 있는 변화이나, 구조적 추세 전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의 지속적 관찰과 추적 분석이 필요함.
 - 특히 최근 반등이 일시적 회복인지, 가족 형성 및 출산 행태의 구조적 변화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연령별 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유배우율, 유배우 출산율, 코호트 무자녀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전체 평균의 변화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집단과 여전히 혼인·출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연령, 혼인 상태, 출산순위, 지역, 소득고용 상태 등 집단별·계층별 심층 분석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30대 인구구조 효과 및 연령별 출산율 변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주거·고용 안정, 일·가정 양립, 돌봄·양육 지원 등 혼인과 출산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2015-2025). **인구동향조사: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6. 3. 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15-2025).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6. 3. 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15-2024).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26. 3. 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15-2025). **인구동향조사: 시도/성/연령별 혼인율**. 2026. 3. 30.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tmprScrid=20260331124429224_b0069498e0f94828
- 국가데이터처. (2014-2024). **인구동향조사: 시도/성/모의 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2026. 3. 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2&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1960-2072). **장래인구추계(전국)**. 2026. 3. 3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 e-나라지표. 2026. 3. 30.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12&idxCd=H0027>
- 국가데이터처. (2025.2.26.)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정책 브리핑** [보도영상]. 2026.03.30. 검색
- 국가데이터처. (2026.2.25.)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정책 브리핑** [보도영상]. 2026.03.30. 검색
- 국가데이터처. (2026).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6. 2. 25. 보도자료
- 이지혜, 김은정, 최인선, 이철희. (2025).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anudas-Romo, V. (2003). *Decomposition Methods in Demography*. University of Groningen

집필 이지혜C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470